국토교통부	보도참고자료	다시,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	
배포 일시	2022. 7. 3.(일)		
담당 부서	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정책과	책임자	과 장 정채교 (044-201-4600)
		담당자	사무관 장 원 (044-201-4602)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SRT 궤도이탈 원인, 선로·차량정비 등 다각도로 조사 중

- 원희룡 장관, 현장관리부터 열차운영까지 안전체계 전면 재검토 지시 -

□ **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**은 지난 1일 발생한 경부선 **SRT 궤도이탈 사고**와 관련, 7월 3일 오전 10시 국토교통부 2차관, 철도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**사고분석 내용**을 **보고**받고 **향후 대책**을 **지시**하였다.

○ 국토부(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)에서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 조사 중인 가운데, 이번 사고는 고속전용선로가 아닌 일반열차가 주로 다니는 일반선로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로 기온상승에 따른 **레일 관리 문제**와 **차량정비 불량** 등 **다양한 가능성**이 제기되고 있다.

○ 또한, **선행열차**에서 **이상징후**가 있었음에도 후행열차에 해당역에서 근무하는 관제원을 통한 감속 또는 주의운전 **지시가 없었던 점**도 **조사 중**에 있다.

□ 원희룡 장관은 “고속열차가 일반선로를 지나가거나, 열차가 분기되는 구간 등 **취약한 부분**에 대한 **특별점검**을 **실시**하고, **현 유지보수체계**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**전면 재검토**하라”고 하였으며,

○ “특히, 선행열차에서 이상징후를 감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**사고**가 **발생**한 **경위**가 무엇인지 **철저히 조사**하고, 열차운행 중에 이상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기관사가 즉시 감속할 수 있도록 **철도관제체계**의 **일체 정비방안**을 **마련**하라”고 지시하였다.

○ 아울러, “국민안전은 최우선 과제이다.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철도안전, 국민편의, 공공 효율 차원에서 현장관리부터 열차운영까지 **철도안전체계 전반**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여 **근본적인 대책**을 **마련**하라”고 하였다.

담당 부서	철도안전정책관 철도운행안전과	책임자	과 장 조성균 (044-201-4611)
		담당자	사무관 백정호 (044-201-4612)
	철도안전정책관 철도시설안전과	책임자	과 장 김계흥 (044-201-4623)
		담당자	사무관 성승원 (044-201-4624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